

중증장애학생의 죽음에 대한 특수교사의 상실 경험*

박미정**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

박경란***

세한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요약》

이 연구는 중증장애학생의 죽음에 대한 특수교사의 상실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중증장애학생의 상실을 경험한 특수학교 교사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별 면담은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녹취된 면담 자료는 근거이론의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준비되지 않은 제자의 죽음에 대해 충격을 받거나 죽음을 회피하기도 하고 무감각함을 느끼는 등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여러 가지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현실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셋째, 상실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특수교육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의 적용과 정보 제공을 위한 지원체제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주제어 : 중증장애학생, 죽음, 상실 경험, 특수교사

* 이 논문은 2015년도 세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여진 것임.

** 제 1저자 (mjp321@naver.com)

*** 교신저자 (kyoungghan@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형의 상실을 경험한다. ‘상실’이란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에게 가까이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유하였던 것의 박탈된 상태를 의미한다. 신체의 일부 상실, 역할이나 지위 상실, 소유물의 상실, 사회적 관계 상실, 죽음으로 인한 상실 등 단순한 소유의 박탈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Sofka(1997)는 상실 경험을 ‘죽음 관련 상실, 관계 상실, 물리적·심리적 상실, 역사적 사건에 의한 상실’로 범주화하였다. 이 중 죽음으로 인한 상실은 일시적 단절이 아니라, 영원히 회복되기 어려운 상실이면서 언젠가 자신이 겪게 될 경험이기 때문에 그 충격과 고통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죽음과 관련된 상실 경험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정서적 고통을 다루는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대부분 부모의 자녀 상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수지 외, 1994; 김종우, 2010; 이종익, 2013). 의미 있는 가족 구성원의 죽음은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며, 특히 자녀의 죽음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해 충격의 강도가 크고 고통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상실과 같은 충격적인 상실 경험은 심리적 외상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할 수 있으며(Sofka, 2004),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상실 경험에 대한 연구는 학급 구성원을 상실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수행되었다(채기화, 2009; Glass, 1991). 이러한 연구는 동료들 상실한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생을 상실한 교사의 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제한적이다. Hart와 Garza(2013)는 예상치 못한 학생의 죽음을 경험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실 후 나타난 다양한 정서적 반응의 해소와 정상적인 학급 운영을 위해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즉 ‘심리 상담사의 지원, 장례식 등의 참석을 위한 휴가 제공, 학습 결손을 위한 지원, 학교 구성원들의 추도회 마련’ 등을 제안함으로써 학생 상실 후 충격 극복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람은 정서적으로 중요한 대상이나 물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마다 그 실체를 통합하려는 자신에게 위협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위협은 정서적 고통으로 경험되며, 이를 애도라 한다(David K & Switzer, 2011). ‘애도’는 중요하게 생각 하던 어떤 것을 잃었을 때 휩싸이는 강력하고 복잡한 감정으로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공포, 당혹, 깊은 슬픔, 절망, 무력감 등의 정서들을 포함한다. 상실 후

애도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표출되는데(Ibid, p.52),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은 여전히 상실된 대상을 향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상실 대상에 대해 계속되는 현존감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상실에 대한 죄의식과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이 적개심으로 표출되며, 이어서 비합리적인 요구 형태로 타인에게 도움을 호소하게 된다. 이후 실망, 움츠림, 퇴행, 분열, 무의함, 공허함과 무력감을 나타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새로운 대상을 향한 행동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상실에 대한 수용과 새로운 대상과의 관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Parkes(1996)는 상실 후 애도 과정을 무감각(numbness), 탐색함(searching), 그리움(pinning), 우울(depression), 회복(recovery)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일정한 ‘애도’의 과정을 통해 ‘상실에 대한 수용과 새로운 대상과의 관계 재구성’ 또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상실 후 개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상실 경험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할 때 그것은 심리적 외상으로 남게 된다. 심리적 외상은 일어난 일의 객관적 비중, 즉 그 사건 자체의 경중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나 주관적 체험, 바꿔 말하면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Finger-Trescher, 2000).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모의 자녀 상실이 개인의 삶의 질과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미칠 영향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면, 특수교사의 학생 상실은 개인과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학급 구성원, 그리고 동료교사, 앞으로의 교직원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중증장애학생은 학급 구성원들 중 ‘아픈 손가락’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과의 ‘관계의 질’ 측면에서 상실 후 특수교사가 겪는 정서적 고통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요구된다.

현재 특수학교 환경은 점차 중증·중복화 되어가고 특수교사는 학기 중에 학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교사는 상당한 심리적 충격에 빠지게 됨으로써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급의 다른 장애학생들과 동료교사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상실 경험은 향후 개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윤명숙 외, 2014).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증장애학생의 죽음에 대한 특수교사의 상실 경험을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학생의 상실로 겪게 되는 특수교사의 심리적 충격과 일상으로의 적응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 상실로 인한 심리적 고통 경감과 학급 및 학교 구성원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선정을 위해 K도내 K시와 P시, C도내 C시, 2곳의 D광역시의 특수학교에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 중 연구자를 포함하여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경험이 있는 사립특수학교 교사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특수학교에서 중증장애학생의 교육경험이 있는 교사 현황을 파악하여 예비 목록을 작성하고, 이 중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후, 해당 교사의 추천을 받아 참여 대상자를 넓혀가는 방법(snowball sampling)으로 실시하였다. 사립특수학교의 교사들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학교 관리직 진출이나 승진에 관심이 없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스템인 사립학교의 특성상(Coolahan et al., 2004) 이들 교사들이 중증장애학생의 상실과 관련하여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연령은 39~55세로, 교직경력은 17년~30년이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령, 학력, 교직경력, 전공, 근무형태 그리고 상실 학생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및 상실한 학생 특성

구분	A교사	B교사	C교사	D교사	E교사	F교사
성별	여	남	남	여	여	여
연령	49	52	47	55	54	39
경력	27	27	23	30	29	17
학력	대학원졸	대학원졸	대졸	대졸	대졸	대학원졸
지역	경북	대구	충남	대전	대전	경북
전공	초등특수	중등특수	초등특수	특수교육	특수교육	중등특수
근무 형태	사립특수학교	사립특수학교	사립특수학교	사립특수학교	사립특수학교	사립특수학교

<표 1> 연구 참여자 및 상실한 학생 특성(계속)

구분	A교사	B교사	C교사	D교사	E교사	F교사	
상실학생 특성	장애유형	청각장애2급 뇌병변 1급	뇌병변 1급 근이양증	자폐1급 간질	지체1급 말린 자두증후군	자폐 1급 지체 1급 골형성부전증	뇌병변 1급 근이양증
	건강상태	면역력이 약해 감기와 폐렴으로 입원치료가 잦음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병약함	간질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대발작이 많음	만성신부전, 심장병이 있으며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을 타고남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위험한 상태	면역력이 약해 잔병치레가 많고 심한 경기를 자주함
	상실사유	폐렴으로 입원 중 사망	분명한 사인이 없다 사망	사위 중 간질발작으로 사망	지병으로 사망	원인불명	잠자는 중에 사망
	연령	6세	13세	12세	9세	16세	7세

2.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 6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학생 상실 이후의 경험에 대해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앞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한 후 연구에 응하기로 한 6명의 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개별면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들 사례에 대한 면담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사례별 면담은 3회 이상 실시되었고, 1회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충 질문을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구조화된 면담형식을 취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취하였으며, 녹취된 자료는 면담을 마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면담 내용 가운데 불분명한 부분은 재면담을 실시하여 면담 내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A4용지 127장 분량이었다.

3. 자료의 분석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질적연구 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개방코딩 과정을 거쳤다. 근거이론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주된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밝혀서 이론화해나가는 작업이다(최귀순, 2005). 즉 실제 자료 속에서 개념들을 발견하고, 반복적인 비교, 검증을 통해 이들 개념 간의 관계를 발견하고, 그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진술을 만들어 가는 질적 분석 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의 분석 절차는 1단계 수집, 2단계 분류, 3단계 분석의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3단계의 분석과정은 코딩(coding)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도출된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무리지어 좀 더 추상화하여 범주화시키는 개방코딩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코딩의 방식은 귀납적 자료 분석방법으로(Hutchinson, 1993),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하여 약호화의 범주와 하위 개념을 개발하고 부여하는 분석방법이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담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듣고 녹음된 말을 그대로 전사하였으며, 기록한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세 번의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전사된 면담내용은 질적 연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 전문가 2명과 함께 반복적인 추출을 실시하였다. 이후 추출된 의미 있는 문장을 중심으로 개념을 명명하였으며, 새로운 개념들이 축적되면 이를 하위범주, 상위범주로 공통된 특징들끼리 유목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40개의 개념과 8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3개의 범주로 분석되었으나, 3개의 범주 중 '학생 상실 이전의 경험' 범주에 속한 내용들이 삭제·통합되어 2개의 주제로 축소되었고, 6개의 하위범주와 30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마지막 검토 과정에서 6개의 하위범주 중 '특수교육의 현실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별도의 주제로 설정되고, 다시 2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됨으로써 최종적으로 3개의 주제, 7개의 하위영역, 30개의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4. 연구의 신뢰도

이 연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면담 시간과 자료수집 기간을 확보하였고, 전사 작업 이후에 연구자가 녹음된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귀납적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의 도출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진실성 점검

기준 중 동료 연구자 조언, 참조 자료의 보관, 구성원 간 검토 등을 활용하였다 (김영천, 2006). 더불어 이 연구의 진실성 확보와 면담 내용의 해석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를 피하고 면접 내용에 대한 통합된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특수교육 전문가 2명과 함께 자료 해석 과정을 공유하였다. 또한 모든 면담 자료를 전사하였고,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여 연구과정 중이나 연구의 종료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 전사가 끝난 후에는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 면담을 실시하여 전사한 내용이 정확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구성원 간 검토를 거쳤다.

III.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중증장애학생을 상실한 경험이 있는 사립특수학교 교사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중증장애학생의 죽음에 대한 상실 경험을 알아보았다. 특수교사의 상실 경험에 대한 면담 결과는 3개의 주제로 범주화되었고, 7개의 하위범주에서 30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중증장애학생의 죽음에 대한 특수교사의 상실 경험

개념	하위범주	범주
상실에 대한 충격/ 죽음에 대한 회피/ 죽음에 대한 무감각	충격과 무감각	상실 후 나타난 다양한 정서적 반응
준비되지 않은 이별에 대한 슬픔/ 수시로 떠오르는 기억/미안함과 안쓰러움/ 특수교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우울한 감정과 특수교사에 대한 회회	
더 잘 해주지 못했던 미안함/ 막연한 죄의식/ 신체적 통증	죄의식과 알 수 없는 신체적 통증	중증장애학생 상실 후 적응과 삶
상처받지 않으려는 노력/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안전사고 예방 철저/ 교육에 대한 강한 신념/ 최대한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 부모 같은 마음/ 학생 상실 후에 생긴 트라우마	교사로서 학생 상실 이후의 변화	
취미생활에서 찾은 새로운 삶/ 동료교사로부터 얻는 새로운 희망/ 종교의 힘/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의 소통/ 학생들로부터 얻은 삶의 힘	새로운 삶을 위한 현실 수용	학생 상실 후 새롭게 인식된 특수교육의 현실
준비 없이 맞이한 중증장애학생의 교육현실/ 학생 상실 후 돌아보게 된 미비한 학교시설/ 이동이 없는 사립학교의 비애	특수교육 및 특수학교 환경 재인식	
체계적이지 못했던 상호작용의 시도/ 보다 적절한 교재·교구를 적용하지 못했던 미안함/ 비로소 알게 된 교육적 전략의 필요성	다양한 교육적 시도의 부재 인식	

1. 상실 후 나타난 다양한 정서적 반응

1) 충격과 무감각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을 떠나보낸 후, 상실 초기에 충격과 학생의 죽음을 부인하는 심리학적 방어기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다양한 정도의 무감각을 느끼는 등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애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상실 후에도 상실 대상에 대해 계속되는 현존감을 나타내거나 (David K & Switzer, 2011), 무감각(Parkes, 1996) 등의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견해를 보인다.

(1) 상실에 대한 충격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초기에 믿어지지 않는 충격을 느끼거나 처음 제자를 잃은 경험에 악몽을 꾸는 등 엄청난 충격을 느꼈다고 했다.

처음에는 뭐 믿기지도 않고 그때도 운전하고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지고 운전을 한동안 못했거든요 잠깐 갖길에 세우고...(F) 실제 내 반 애가 유명을 달리하는 거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컸어요, 꿈에도 나타날 정도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E) 하,, 마음이 많이 아팠고... 같이 지냈던 그 미소와 그 착했던 표정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많이 우울했고... 충격이 컸었어요, 갑자기 당한 일이라...(B) 제가 담임 이었지만 그 때 팀티칭 한 선생님들끼리는 다~ 엄마아빠나 마찬가지로였으니깐 그 선생님들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힘들었는데 그냥 그러고 내색을 못했죠.(C)

(2) 죽음에 대한 회피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병원에 있을 것 같거나 시간이 지나면 학교에 다시 올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학생의 죽음을 부인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날 오후 3시쯤 운명했다 소리를 들었고 그래 갖고 우리는 갑자기 당한일이라 너무 믿을 수가 없었고 어... 그 아이를 그 중환자실에서 봤었던 그 모습이 진짜인가 내가 뭐 잠깐 꿈을 꾸는 건 아닌가... 그냥 꿈일 거라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E)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 부모님께 확인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그래도 현실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뭐 워낙 결석이 많았던지라... 좀 지나면 오겠거니 생각이 되는 거예요...(A)

(3) 죽음에 대한 무감각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직후 학생의 죽음에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느끼는 등 부정의 형태로 반응하였다.

그렇게 병원에서 어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잠시 들어가서 유치원 졸업장 전해주고 의식도 없는 아이한테... 그리고 와서 방학이 다 지나고 3월 엄청 바쁜 일과를 보내는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00이 하늘나라 갔다고... 그 당시에는 별로 느낌이 없더라고요...(A)

2) 우울한 감정과 특수교사에 대한 회의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을 떠나보낸 후 상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충격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분노감이 증가하면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정 조절이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감정과 슬픔, 미안함, 안쓰러움, 현실에 대한 절망감 등의 감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 상실 초기 교사는 충격과 혼란을 느끼다가 점차 슬픔과 절망감, 그리고 무력감을 나타낸다는 Hart & Garza(2013)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이는 학생 상실 후 부정적 감정 해소를 위해 심리 상담사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 준비되지 않은 이별에 대한 슬픔

연구 참여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이별에 대한 슬픔과 그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하고, 더 이상의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해 장례 절차에 끝까지 참여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나도 00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깐... 오 슬퍼지더라고요... 나는 좀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F) 술 많이 마셨죠... 그때 술 많이 마시고... 그 하루 밤새고 나왔는데... 그 화장터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 당시엔 못 따라 가겠더라고요.(C) 입관할 때 또 가봤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지 않고는... 개가 유난히 좋아했던 거 보면 막 떠오르니까 확실히 진짜 모든 걸 다 봐야지 될 거 같아서... 마지막 모습까지 다 봤고 뭐 그리고 왔는데도 한동안 너무 너무 힘들었고...(E) 그때 그 병원 가서도 술 많이 마셨죠, 그날 그때 술 많이 마시고 차마 그 하루 밤새고 나왔는데... 그 화장터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 당시엔 못 따라 가겠더라고요.(C)

(2) 수시로 떠오르는 기억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수시로 떠오르는 학생의 기억으로 슬픔의 나날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한 학생이 편안한 곳에서 좋은 모습으로 지내겠다고 생각하거나, 학생이 좋아했던 물건을 봤을 때 교실에서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수업에 참여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많이 슬퍼하기도 하였다.

애가 참 불행하게 억울하게 갔다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 이제 천사가 됐겠다, 그런 걸로 마음을 많이 다스리죠.(D) 어떤 특정한 음식을 봤을 때도 아 이거 00이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떤 물건을 봤을 때도 좋아했었는데...(E) 그 교실에서 같이 생활했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통화도 좀 하기도 하고...(D) 우리가 놀이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제일 즐겁게 뛰쳐나와서 했던 애가 00인데... 한번씩 울컥울컥했었고...(C)

(3) 미안함과 안쓰러움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잘 지내고 있다는 부모의 메시지만 믿고 확인하지 못했던 점과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지원이나 여러 시설을 전전해야 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막연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니까 뭐 충격적이어 가지고... 왜냐면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엄마도 카톡 같은데다가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 같이 말했고... 갑자기 자다가 가버렸어요... 너무 그런 것들이 조금 하~(F) 00이 가정형편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더 안쓰럽고 가슴이 아려요(E) 이혼한 상태에서 편모가 애를 봐야했고 엄마가 일을 하면서 가끔씩 애를 저 단기보호센터나 이런데다가 많이 맡겼고... 더 가슴이 아팠어요(D)

(4) 특수교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특수교사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 있고난 후에는 내가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C) 중증장애아들이 많아지는 시점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때 한참 고민을 하던 차였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F)

3) 죄의식과 알 수 없는 신체적 통증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학생이 영원히 가버렸다는 현실감에 직면하게 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면서 미안함과 죄의식과 같은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정서적 고통이 여러 가지 신체적 통증으로 드러났음을 언급하였다.

(1) 더 잘 해주지 못했던 미안함

연구 참여자들은 식이요법을 해야만 했던 학생을 떠올리며 먹지 못하게 했던 자신의 가슴을 치기도 했고, 좀 더 편안한 학교생활과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지 못했음을 말하며 교사로서 미안해했다.

못 해줬던 것만 기억나고 평생 그런 잊을 수 없는 아이로 남고... 이름도 못 잊어버리고 그런 아이의 경우는 항상 못 해준 것만 기억나죠,(D) 제일 먼저 후회한 게 그 먹을 거 좀 더 줄 걸 이왕 이렇게밖에 못 살 것 같았으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실컷 먹게나해 줄 걸 이렇게 짧은 인생이었다면 실컷 먹게나 해줄 걸... (F) 조금 더 편하게 학교 다니면서 즐기면서 학교 다니게 할 걸... 많이 놀게 해 줄걸 그런 후회가...(B)

(2) 막연한 죄의식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었던 학생을 떠올리며 자신의 부족했던 관심과 행동에 대하여 막연한 죄의식을 느끼기도 했다. 김수지 등(1994)은 자녀를 상실한 어머니의 고통 체험 대한 연구를 통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죄책감'을 핵심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들고 있다. 상실 대상이 자녀와 학생이라는 점에서 반응의 강도 차는 있겠으나, 중증장애라는 이유로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던 경험이 교사의 죄의식과 연계된다는 것은 예측해 볼 수 있다.

마음이 좀 슬펐고 개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막연한 죄의식이 느껴졌더라고... 중증장애라는 이유로 부모나 교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었고...(B) 나름 세심한 배려나 친절한 활동을 한다고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점이 많았죠... 좀 더 잘 해줄걸... 죄인 같은 심정이 되더라고... (E)

(3) 신체적 통증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미안함과 죄의식을 느꼈고 그런 감정들이 이어져 가슴 답답함, 몸살, 근육통, 소화불량, 비정상적 아픔 등의 신체적 통증을 한동안 안고 지냈다고 하였다.

그렇게 보내고 가슴이 답답하더니 습관처럼 한숨도 나고... 심하게 몸살이 와서 한 번도 안 해본 병가도 내고...(B) 신경써서 그런지 어깨가 빠질 것 같이 아파서 한동안 물리치료 받았는데... 계속 소화도 안되고...(D) 마음이 아픈건지 몸이 아픈건지도 모르겠고... 아이의 빈자리가 자꾸 눈에 밟히고... 계속 울었어요, 혼자서는 소리 내서 울기도 하고... 우울했어요... 농사 잘 지어놓았는데 도둑맞은 느낌처럼 계속 허한 마음이...(F)

2. 중증장애학생 상실 후 적응과 삶

1) 교사로서 학생 상실 후의 변화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고통스러운 단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동료교사와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로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상처받지 않으려는 노력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이후로 동일한 상황이 직면하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기제를 나타냈다.

많은 아픔이 계속되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도 되고... 되도록 좀 거리를 두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으려는 습관 같은 거... 그럼 헤어지는 것도 좀 쉬울 것 같아서...(A) 애들이 학교 와서 하루 동안 행복하게만 보내면 우리가 할 일은 끝인 것 같아... 더 이상 뭐 할게 있나... 그렇게 마음을 비웠어요(C)

(2)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오히려 남의 일처럼 생각해버리려는 방어기제를 보이기도 하였다.

안됐다 안타깝다 슬펐다 이정도 감정은 가지고 있고... 가끔씩은 00이가 문득문득 생각 날 때도 있어(B) 우린 뭐 부모는 아니니까... 힘든 거는 사실 부모들의 책임이니까...(D) 떠난 친구는 떠난 친구고... 미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교사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러니까...(F)

(3) 안전사고 예방 철저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학교나 학급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교실배치를 할 때... 아이들 넘어질 수 있잖아요 최소한으로 다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D) 특수학교에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한반에 두세 명 정도는 휠체어 타는데...언제 또 이런 사고가 있을지 모르고...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 꼭 한분씩 붙여두고 설명도 드리죠...(C)

(4) 교육에 대한 강한 신념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학교 업무의 소홀함에 대해 동료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남은 학생들과의 학급활동 중 집중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학생 상실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강한 신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나 힘들고 괴롭다고 옆 반 선생님께 아이들 잠깐 봐달라고 하고... 그땐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많은 피해를 준 것 같아요(A) 자꾸만 생각이 나서... 목구멍에 뜨거운 게 올라오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거야... 그러다 한 애가 넘어져서 다치고... 이러다 또 큰일 나겠다 싶고...(E) 노력을 해야죠... 그것이 자기 무기니깐 주위의 어떤 걸로 자기의 신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 힘드니깐 자기의 노력으로 해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C) 이런 일로 많은 상처를 받지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생활 그렇게 해야죠... 퇴직 할 때까지...(F)

이러한 결과는 학생 상실 후 교사들이 학습 결손과 일상적인 수업 복귀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몰입한다는 Hart와 Garza(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반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했던 Hart와 Garza(2013)의 연구와는 달리 남아 있는 학급 구성원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일반아동에 비해 지적장애아동은 상실에 대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채기화, 2009), 이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최대한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학생들에게 최대한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였다.

함께 있는 시간에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자... 아이들이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애를 웃게 만들고...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고...(F)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보내야겠다, 그리고 내가 애들한테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달리 하게 되고...(C) 담임으로서 후회가 없도록 하려면 항상 평상시에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하고 사랑을 많이 즐기고 노력해야 하고...(D)

(6) 부모 같은 마음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교사와 부모를 동일시하여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상실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내 새끼지... 내가 혼내는 건 괜찮은데 남이 혼내면 짜증나고...(E) 기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밖에 없으니깐... 우리가 부모잖아... 학교 엄마...(F) 그래도 부모의 그 상황에는 비할 건 아니지만 못지않은 고통과 통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오래 갈 것 같아요...(A) 세월이 지나도 그 애가 안 잊혀져... 공부 잘하고 별 탈 없이 지나간 애들은 별로 기억 안 나잖아 솔직히... 이렇게 가벼린 애들은 내내 마음에 남아서 끝까지 있는 거 같아... 가슴에 묻은 거지...(B) 00아 오늘부터 내가니 아빠야 이러니깐,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깐 막 좋아가지고 그랬는데...(C) 선생님들이야 뭐 어떻게 보면 자식처럼... 자식이니 교사의 마음은 자식 같은 마음이 드니깐... (D)

(7) 학생 상실 후에 생긴 트라우마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사고나 학생들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호소하였다.

이게 트라우마 인지 몰라도 한 번씩 껌쩍 껌쩍 놀랄 때가 많아요... 특히 저 애들 넘어지고 그런 거 보면...(F) 어떻게 보면 또 교훈이 되죠 다음 학생을 또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이... 어떻게든지 소외를 시키지 않으려고...(D) 간질하는 친구들 특수학교에 많잖아요, 한번은 식당에서 진짜 대발작이라고 하잖아요, 밥 먹다가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 누구보다도 제가먼저 뛰어가게 되더라고요...(C) 정말이지 부실한 애들 보면 겁나 진짜...(E)

2) 새로운 삶을 위한 현실 수용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을 떠나보낸 후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점차 자신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1) 취미생활에서 찾은 새로운 삶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사진 찍기나 여행 혹은 운동과 같은 취미생활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도 하였다.

사진을 좀 시작을 하고 재밌을 때였거든요. 한동안 몰입했고 그 때 자격증도 따고 해가지고... 전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C) 그 일 이후로 그 여행을 많이 갔었어요. 여기저기 출장 간다는 핑계로 여기저기 그런 핑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B) 운동을 좀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A)

(2) 동료교사로부터 얻는 새로운 희망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다른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동료와의 상담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기도 했다.

친구들도 특수교육을 하고 있으니깐 그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또 나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언도 많이 얻고...(F)

(3) 종교의 힘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동료교사와 아픔을 공유하면서 종교의 유무를 떠나 기도를 하기도 하면서 종교의 힘에 의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권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성이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과 상관이 있다는 최선재(2011)와 Park(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상실에 대한 의미 재구성과 긍정적 심리적 적응이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점에서(최선재, 2011), 상실 후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종교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신을 찾아서 기도를 한 건 아니지만 저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D)

(4)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소통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주변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었다는 언급과 함께 이와 같은 상실을 경험한 교사에게 심리치료를 받도록 권하기도 하였다.

친한 사람이던지... 속마음을 터놓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의 이런 슬픔과 속상한 마음을 얘기를 하면 좀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C) 마음의 병이 있으면 심리치료 이런 것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F)

(5) 학생들로부터 얻은 삶의 힘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후 극복 과정에서 새롭게 맞이하게 된 학생들이 삶의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새로운 애들이고 그 학년 애들이 재밌고 활발하고 나도 그 애들을 맡고는 애들이 너무나 즐겁고 반응이 좋으니까... 즐거운 생활을 하고 교직생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C) 남아있는 친구들 생각하면서 빨리 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B) 세월이 약이라고 이것도 애들을 볼 때 마다 생각하던 것들이 점점 뭐 희석이 되고 또 평소와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애들도 다시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C)

3. 학생 상실 후 새롭게 인식된 특수교육의 현실

1) 특수교육 및 특수학교 환경 재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 상실 후의 아픔에서 벗어나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환경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1) 준비 없이 맞이한 중증장애학생의 교육현실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과 대면하게 되고, 이에 따른 충격에서부터 시작하여 잠시도 여유가 없는 학급 운영과 중증장애 학생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아 처음 할아버지가 안고 교실에 들어오는데 딱 짐 싸서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 맞아요 딱 도망가고 싶었어요(A) 어떤 장애가 합쳐져 있는지 모르겠고...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겠다 생각했지요(B) 그 아이를 운동을 시키는 순간에는 다른
 애들 제쳐놓고 개만 주시해야하는 형편이라 학급운영이 엉망이 되기도 하고,, 아이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맞는지 자신도 없고...(D) 소변이 나오면 체크를 항상 해야
 하는... 담임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D)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운동을
 했었는데, 다리랑 이런데 운동기능은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혹시나 딱 넘어지면서
 배를 다칠까봐...(E)

(2) 학생 상실 후 돌아보게 된 미비한 학교시설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의 미비로 좀 더 원활한
 교육방법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당시의 고민을 언급하였다.

휠체어에서 좀 내려와서 바닥에 눕혀놓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학교생활이 또
 눕혀 놓을 만한 편안한 공간도 없고...(D) 본리가 된 침대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없고 그냥 휠체어 한쪽에 앉아 있으니깐 아침마다 그 아이를 보면 잉~
 우는 얼굴로... 괴로운 얼굴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갈 때 까지도 잉~ 우는 얼굴로
 가는데...(E)

(3) 이동이 없는 사립학교의 비애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 상실 후 환경의 변화를 생각하기도 하고,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면서도 이동이 어려운 사립학교라는 구조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현실에 비애를 느끼고 있었다. 학생 상실 후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Hart와 Garza(2013)는 자원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으며, 특히 장례식 참여, 심리상담, 기존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원과 심리
 상담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은 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꿰요... 가끔은 심리상담 같은 거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학교가 답답해요... 우린 사립학교라 어디 갈 곳도 없고...(F) 이게 특수교사의
 길인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거부하면 갈 데도 없고...(C)

2) 다양한 교육적 시도의 부재 인식

(1) 체계적이지 못했던 상호작용의 시도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과의 제한된 의사소통 기능으로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의사 전달이 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특히 중증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찾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청각장애가 있어 왼쪽에 인공와우 수술을 했지만 소리에 대한 반응도 없고 울거나 웃거나 그 정도에서 아이의 기분을 아는 정도였지 더는 어려웠어요(A) 살짝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빨대를 이렇게 대롱을 꽂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피를 뽑아내는데... 그 때 병원에 가서 느꼈던 거는 이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한 번도 머리가 아프단 소리를 안 하고...(D) 항상 아픈 얼굴이었어요,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내가 뭘 더 해줄 수도 없고...(E)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보지만 반응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말로도 하지만 주로 몸짓과 행동으로 보여줘도 반응이 미미하고...(C) 대화라는 건 일방적으로 내가 개를 쳐다보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얘기해주고 뭐 노래 불러주고 이런 시간이지만 그런 것 밖에 못해준 것이 지금 까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D)

(2) 보다 적절한 교재·교구를 적용하지 못했던 미안함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이 학급 내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적절한 교재·교구의 미비로 교사의 부담감이 가중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솔직히 아이들 교재 준비하느라 오후 시간을 다 보내는데 00이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 많이 소홀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A) 노력해야지 하면서도 학교 업무핑계로 준비도 못하고 수업시간에 항상 같은 교재를 주는 경우가 많았죠, 집에 가서 생각하면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B)

(3) 비로소 알게 된 교육적 전략의 필요성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에게 적용할 교육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전략의 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하였다.

좀 더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대안들... 교육적 대안들을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 하지...(C) 이제 학습 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뭔가 아이에게 꼭 맞는 교육적인 부분이 좀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싶고... 중증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같은 거... 좀 뭔가 해줬더라면 덜 미안했지 않을까 해서...(D) 이 후로는 그런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제 자신이 의학적인 자료나 그런 것을 준비를 많이 하고 해서 건강이나... 그 아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B)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증장애학생의 죽음에 대한 특수교사의 상실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중증장애학생의 상실을 경험한 특수학교 교사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특수교사의 상실 경험에 대한 면담 결과는 3개의 주제로 범주화되었고, 7개의 하위범주에서 30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중증장애학생의 상실에 대하여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냈다. 학생을 떠나보낸 후 상실 초기에 충격과 학생의 죽음을 부인하는 심리학적 방어기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무감각을 느끼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냈다. 상실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충격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분노감이 증가하면서 정서적·신체적으로 감정 조절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연구 참여자들은 우울한 감정과 슬픔, 미안함, 안쓰러움, 현실에 대한 절망감 등의 감정을 느꼈으며, 이후 학생이 영원히 가버렸다는 현실을 인식하며 미안함과 죄의식과 같은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정서적 고통이 다양한 신체적 통증으로 드러났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의 상실 후 새로운 적응과 삶을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의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점차 자신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학생 상실 후 고통스러운 단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동료교사와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긍정적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 상실 후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중증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의 미비, 교육과정 및 적절한 교재·교구의 부재를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전략 마련의 시급함을 호소하였다.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증장애학생의 상실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 상실 후 심리적 충격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제자를 잃은 교사들은 부모의 자녀 상실 경험 못지않은 충격과 슬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사회적 지지가 요구된다.

둘째, 동료교사 및 학급 구성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급휴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 상실 후 교사들은 잠시의 휴식 기간도 없이 학교 일을 맡아야 하고, 남아 있는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특수교사에 대한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일정 기간의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충격과 슬픔의 감정을 해소하고 조속히 학교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학생 상실을 경험한 특수교사 모임을 통한 정서적 감정 공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이버 상담실 운영이나 동질의 자조집단을 구성하여 상실의 슬픔을 위로하고, 토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중증장애학생의 원활한 지도를 위한 시설 정비 등의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중증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의 정비와 환경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좀 더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중증장애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지도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그들에게 적용 가능한 교재·교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 학생이 학급 구성원으로서 수업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수지, 신경림, 양순옥 (1994). 자녀를 상실한 어머니의 고통 체험. *간호과학*, 6, 5-31.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문음사.
- 김종우 (2010). *자녀 실종 부모들의 경험 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윤명숙, 박은아, 이해경 (2014). 관계상실 경험과 삶의 질의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 175-191.
- 이종익 (2013). *자살한 청소년 부모의 떠나보냄 경험*.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채기화 (2009). 지적장애아동의 상실 경험과 애도 작업.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49-62.
- 최귀순 (2005). Strauss와 Glaser의 근거이론방법론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14(1), 82-90.
- 최선재 (2011). *상실 경험의 의미 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혜란 역 (2011). *모든 상실에 대한 치유, 애도*. (David K. Switzer 저). 학지사.
- Coolahan, J. et al. (2004).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 Country note of Korea*. www.oecd.org/edu/teacherpolicy.
- Finger-Trescher, Urte (2000). Trauma and Re-Inszenierung in professionellen Erziehungsverhältnissen, Finger-trescher, U., Krebs, H. (Hg.). *MiBshandlung, Vernachlaassung und sexuelle Gewalt in Erziehungsverhältnissen*. GieBsen 123-138.

- Glass, C. J. (1991). Loss and grief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Implications for the school counselor.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26*(2), 139-148.
- Hart L, & Garza Y. (2013). Teachers perceptions of effects of a student's death: A phenomenological study. *Journal of Death and Dying, 66*(4), 301-311.
- Hutchinson, S. A. (1993). Grounded theory: The method. In P. L. Munhall & C. O. Body(Ed.), *Nursing research: A qualitative perspective*(pp. 180-212).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Pub. No. 19-2535.
- Parkes, C. M. (1996). *Bereavement* (2nd ed.). London & New York: Routledge.
- Park, C. L. (2005). Stress-related growth and thriving through coping: the roles of personality and cognitive processes. *Journal of Social Issues, 54*(2), 267-277.
- Sofka, C, J. (1997). Loss History Checklist. In J. D. Maanino (Ed.), *Grieving days, healing days*, (p.20). Boston: Allyn & Bacon.
- Sofka, C, J. (2004). Assessing loss reaction among older adults: strategies to evaluate the impact of September 11, 2001.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6*(3), 260-281.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Loss experience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from deaths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Park, Mee-Jung

Uiduk University

Park, Kyung-Ran

Sehan University

<Abstract>

To analyze the loss experience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from deaths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data were collected via individual interviews with six special education teachers who had experienced the loss. The interviews were performed in a setting where the interviewees could explain their experiences as naturally as possible, and were semi-structured to maximize the amount of information earned. Interviews were tape-recorded under each interviewee's agreement, and the recorded interviews were analyzed by taking open coding of grounded theoretic approach through transcription. As results, first,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reacted to their students' deaths with various emotional responses including a shock from unexpectedness of an incident, an evasion of the fact, and an insensitivity. Second, the teachers experienced many different changes such as accepting the reality in an affirmative attitude for a new life. Third, they came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special education, and mentioned on a need for a support system for the application of diverse education methods for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to overcome the reality.

Key Words :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death, loss experien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논문 접수: 2015. 11. 05 심사 시작: 2015. 11. 10 게재 확정: 2015. 12. 17